



월드컵 소식

‘심판 판정’ 최대 이슈

2006 독일월드컵축구가 연일 계속된 심판 판정오류와 자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조차 포르투갈-네덜란드전에서 나온 경고 16회에 4번의 퇴장을 지켜보고 “심판이 경고감”이라고 혀를 찼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번을 넘어서지 오래다. 특히 경고 혹은 퇴장에 관한 월드컵 신기록이 세워진 포르투갈-네덜란드전에서는 두 팀 관계자들이 “수시로 휘슬이 울려 축구를 하기 힘들었다”고 불평했다.
또 이른바 ‘축구 변방’ 대표팀은 “축구 강국에 판정이 유리하게 흐른다”는 불평을 늘어놓는 등 전체적인 심판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퇴장 24번·경고 298번 ‘최대’ 경기운영 등 자질 논란 후끈

번 대화를 통해 마라도나의 ‘신의 손’ 대신 스위스 수비수 파트리크 뮐러를 빗대 ‘뮐러의 손’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였다.
27일 이탈리아에 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내줘 탈락한 호주의 거스 히딩크 감독 역시 경기 후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면 페널티킥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판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AP통신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심판들이 경험 부족으로 기초적인 실수를 많이 범하면서 블래터 회장이 ‘월드컵 심판 선발을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번 대회 개막 전에는 ‘이보다 더 심판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할 수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이런 말들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스위스 또 손으로 축구

27일 열린 독일월드컵축구 16강 우크라이나와 스위스의 결전.
후반 14분 프리킥 찬스를 잡은 우크라이나의 간판 킬러 안드리 셉첸코(AC밀란)는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예리하게 오른발로 볼을 감았다.
커브를 그린 볼이 골문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스위스가 쌓은 방어벽의 중간에서 있던 리카르도 카바나스(FC코헨)가 점프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오른쪽 팔뚝으로 볼을 쳐다. 셉첸코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주심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멕시코 출신의 베니토 아르추디야 심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난 24일 하노버에서 열린 한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신의 손’으로 문간한 수비수 파트리크 뮐러(리옹)의 행동을

링 장면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날 스위스는 ‘손으로’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승부차기 끝에 탈락의 고배를 든 스위스는 이날 심판 판정의 덕을 거의 보지 못했다.
본부석에는 스위스 출신인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프란츠 베크엔바워 독일월드컵 조직위원장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지난 19일 한국-프랑스전 주심을 뺀 아르추디야 심판은 비교적 공정하고 때때로 경기 진행했다. 드물게 경고도 1장 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스위스 팬들은 틀만하면 야유를 퍼부어왔다.
전반 40분 필리프 데겐(도르트문트)의 왼쪽 돌파를 우크라이나 수비수가 저지하자 ‘왜 파울을 불지 않느냐’며 아우성쳤

우크라이나전 페널티지역 수비수 팔뚝으로 볼 쳐내

다. 반대로 1분 뒤 우크라이나 윙백 안드리 네스마치니(디나모 키예프)의 돌파를 데겐이 저지하자 휘슬이 울려 스위스 팬들의 야유는 더 커졌다.
연장 후반 스위스 공격수 마르코 슈트렐러(FC코헨)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안드리 후신(CSK사마라)의 육탄 방어에 막혔다.
스위스 팬들은 페널티킥이라도 마구 휘파람을 불어댔지만 아르추디야 심판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히 볼을 막아낸 장면이 리플레이로 나왔다.
스위스 팬들은 120분 내도록 심판 판정에 야유를 쏟아냈다. 승부차기에서 자기네 1-3번 키커가 연달아 실축하는 장면을 보고는 스탠드에 폴짝 뛰어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 시즌 ‘홈런 가뭄’

홈런 선두 겨우 13개...거포 부재 원인 ‘20개대 홈런왕’ 불명예 기록도 가능

올 시즌 프로야구의 홈런 기근 현상이 심각하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 95년 이후 11년만에 ‘20개대 홈런왕’ 출현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도 나올 듯 하다.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중반을 넘어선 26일 현재 홈런부문 1위는 롯데의 ‘검은 갈매기’ 켈릭스 호세로 13개의 홈런을 그렸고 이대호(롯데·12개)와 박재홍(SK·11개)이 2, 3위를 달리고 있다. KIA의 장성호와 데이비스(한화), 이도형(한화), 마이로우(롯데)가 각각 10개씩을 때려내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하지만 홈런 26개로 미국 프로야구를 휘젓고 있는 앨버트 푸홀스(세인트루이스)와 24홈런으로 일본 야구를 평정한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에 비하면 한국 홈런더비 13개는 초라한 수치다.

이런 페이스가 지속된다면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는 지난 1995년 김상호(당시 OB·25개) 이후 사라진 20개대의 홈런왕이 나올 수도 있다. 김상호의 25개 기록 이후 홈런부분 1위는 모두 30개 이상을 기록했고 99년(54개), 2003년(56개)의 이승엽을 비롯해 40개 이상이 5차례나 됐다.
우선 올 시즌 홈런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투고타저’의 현상이 꼽힌다. 8개 구단의 팀 방어율을 보면 역대 최고의 수준이다. 1위 두산이 팀방어율 3.08로 가장 좋은 가운데 4.18의 LG를 제외하면 7개 구단 모두가 3점대 중 후반의 팀방어율을 보이고 있다. 보통 2개 팀 정도가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나머지 팀들이 4점대 초반을 유지했던게 예년 분위기였다.
이승엽의 56홈런을 포함해 6월까지 홈런 30개 이상을 기록했던 지난 2003시즌에는

KIA가 3.62로 팀방어율이 가장 좋았고, 8개 구단 평균은 4.27이었다. 올 시즌 현재 3.62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투고타저’ 현상과 함께 홈런 부진의 또 다른 원인은 거포의 부재다. 1990년대말 한국 프로야구를 아치소로 수놓았던 타이론 우즈(주니치 드래곤스)와 이승엽만한 거포가 없다.
어제 및 무릎을 수술한 ‘해라클레스’ 심정수(삼성)는 시즌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사실상 올 시즌을 접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 지난해 35개의 아치로 홈런왕에 오른 현대의 용병 래리 서튼도 팔꿈치 부상으로 개점 휴업상태다. 역시 윈 어게 치료로 ‘코볼스’ 김동주(두산)가 빠진 것도 홈런 재미를 반감시킨 요인 중 하나다.
여기에 올 시즌 기대를 모았던 ‘용병 타자’들의 부진도 홈런기근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당초 최고 30홈런을 예상했던 KIA의 마이클 서브넬은 한국 야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고 198cm, 125kg의 거구를 자랑하는 SK의 피커링도 홈런 9개의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25주년 올스타전 입장권 예매

7월 22일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지는 프로야구 25주년 기념 올스타전 입장권 예매가 27일부터 시작됐다.
인터넷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전화 1588-7890, 지하철 역이나 편의점에 있는 한레트 자동 발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지정석이 1만원이고 일반석은 성인 7천원, 군인 경찰 및 학생은 5천원, 어린이는 3천원이다. 한 사람이 4장까지 살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가족관람객(성인 2명, 초·중·고 자녀 2명)에 대해서

는 협찬사인 도미노 피자와 함께 패키지 상품도 특별히 준비했다. 4만 5천원짜리 ‘4인 가족 패키지권’을 사면 지정석 입장권 4장, 막대풍선 4세트, 기념 티셔츠 4벌, 팝플릿 1권, 2만원짜리 피자 교환권을 주고 2만 8천원짜리 패키지권을 사면 일반석표 4장에 막대풍선 4세트, 티셔츠 4벌, 2만원짜리 피자 교환권 1장이 따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볼을 향한 집념 26일 개막한 월드컵 테니스 대회에서 러시아의 베라 즈보나레바가 벨기에의 킴 클리스터스의 공을 받

한국인 78% “행복한 6월”

한국갤럽 전화 여론조사

한국인의 77.9%는 2006독일월드컵축구로 6월 한달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조별리그 G조 마지막 경기인 한국-스위스전이 끝난 뒤 전국의 15세 이상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월드컵으로 즐거웠다’는 답변이 그렇지 못하다(19.6%)는 의견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응원방식도 ‘거리응원’을 비롯, 대형 전광판 앞에서 응원(22.1%)하거나 붉은 옷을 입고 응원(35.9%)하는 등 2002년 못지않게 적극적인 응원을 펼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스위스에 져 16강에 탈락한 것을 두고 응답자의 56.3%와 88.9%가 각각 ‘운이 나빠다’, ‘주심의 판정이 부당하다’를 선택한 반면 이와는 별도로 조사자의 57.3%는 축구 경기의 승패는 선수의 실력으로 결정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 3사의 월드컵 관련 방송량에 대해서는 61.9%가 ‘많았다’고 답해 월드컵 ‘올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4.3% 포인트에 95% 신뢰수준이다.

“한국, 아시아서 전술 최고”

벨라판 아시아축구연맹 사무총장

피터 벨라판 아시아축구연맹(AFC) 사무총장이 27일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전술적으로 가장 잘 정비된 팀 중 하나”라고 칭찬했다.
벨라판 사무총장은 “아시아 팀들의 모든 경기를 봤다. 아시아의 4팀이 16강에 오르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국은 자신들의 축구 스타일로 4년 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 번 볼공의 정진력을 볼 수 있었고 몇 차례의 멋진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벨라판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번에는 전략적인 실수를 범했다. 스위스전에서 키가 크고 신체적으로 강한 유럽 선수들에게 유리한 긴 패스 전략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2002년에서 한국의 성과에 대해 “그 때는 미드필드에서 공격을 시작해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리는 올바른 경기 전략을 수립했다. 빠른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해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아시아 선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호주의 AFC 가입에 대해 “호주는 대부분의 아시아 팀과는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신체 조건이 뛰어나며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한다”고 평가한 벨라판 사무총장은 “아시아 대회에 호주가 참가한다면 아시아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레트 신인상’ 경쟁 치열

루카스·포돌스키·루니·메시 등 유력

최고의 ‘루키’가 되려면 라이벌을 밟고 올라서라.
독일월드컵축구 8강팀이 윤곽을 거의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신설된 ‘질레트 최고 신인상’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후원사인 질레트가 후원하는 이상은 준결승이 끝난 시점에서 FIFA가 대회 개막전 발표했던 21세 이하 42명의 후보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투표 결과로 나온 상위 6명 가운데서 FIFA 기술연구그룹이 후보 3명을 추린 뒤 영예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신인상 후보는 개최국 독일의 루카스 포돌스키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잉글랜드 웨인 루니 등 4명.
포돌스키는 라이벌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과 16강에서 2골을 터뜨리는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8강행을 이끌었고 현재 3골을 넣어 득점 랭킹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무더기 경고’ 심판의 실수

잉글랜드 주심, 경고선수 이름 잘못 기재

2006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에서 한 선수에게 ‘무더기’ 열로카드를 준 심판이 선수 이름을 잘못 기재했다고 시인했다.
23일(한국시간) F조 호주-크로아티아 경기의 주심을 맡았던 잉글랜드출신 그레엄 폴 주심은 “크로아티아 요시프 시무니치의 첫 경고 때는 수첩에 제대로 적었으나 두번째 경고가 나왔을 때 같은 등번호 3번인 호주 크레이그 무어의 이름을 적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폴 주심은 시무니치를 즉각 퇴장시키지 못했고 인저리타임 때 시무니치가 판정에 불만을 터뜨리자 그 때서야 레드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번 대회 결승전 주심을 맡을 유력한 후보였던 폴 주심은 이 경기의 실수 때문에 8강전부터 심판으로 나설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함평다이너스티CC ‘로즈데이’ 확대 실시



○4개월 앞둔다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대표 오영내)는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크림 자율판매를 클럽하우스 주변 티업 준비장소에 설치해 판매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함평다이너스티CC는 월요일에 내장하는 여성골퍼들의 그린피 2만원을 할인하는 ‘로즈데이’ 행사를 평일(화·수·목·금) 1부(오전 7시~9시30분)까지 확대 실시한다.
따라서 주중 1부시간에 내장하는 여성골퍼들도 그린피를 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골드레이크CC(사장 김영섭)는 6월부터 매월 우수 회원을 선정해 6개월

이내 주중·주말 2회 부킹권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서비스 일환으로 스타트 하우스(첫번째 그늘집) 주변 2곳과 벨리코스 2번홀 등 총 3곳에 그늘막 공사를 완료해 고객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골드레이크CC에서는 지난해 9월 개장 이래 회원 18회, 이글 33회, 알바트로스 1회가 기록됐다.
이중 벨리코스 8번홀(파3·153m)에서 회원이 8번 나와 행운의 홀로 자리 잡았으며 이글은 벨리코스 1번홀(파4·364m)에서 9번이 기록됐다.
박종영 골드레이크 총무팀장은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를 맞아 내장객들이 편안하게 라운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형임 시니어여자오픈 우승

김형임(42)이 2006 아카아골프 시니어여자오픈 2차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시니어대회에 처음 출전한 김형임은 27일 강원 원주 센츨리21골프장(파72, 5천 836야드)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2라운드 합계 1언더파 143타로 1타차 우승을 차지했다.
이오순(44), 최인자(46), 한명현(52)이 합계 이븐파 144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8일(수)
▲(텍사스-샌프란시스코)(11:05-X-ports)
▲일본 프로야구(요코하마-요미우리)(17:50-SBS스포츠)
▲프로야구(KIA-롯데)(18:00-KBS SKY SPORTS)